

특집

경성, 시각문화 표상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1910~20년대 경성 도시화의 양상과 특징*

염복규

I. 머리말

廉馥圭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한국근현대도시사

사진은 근대 시기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표상 매체이다. 사진이 등장한 이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믿는 ‘당대의 모습’이란 사진으로 표상된 이미지이다. 기계적인 재현 방식에 의해 외계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특징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정확하고 틀림없는 표상 매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재현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누가 무슨 의도로 찍었는가’에 따라 같은 사물이라도 전혀 다르게 재현된다.

따라서 사진이 실재와 닮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그 재현 주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재현의 맥락을 따져보아야 한다.¹ 이에 더해 여러 장의 사진을 ‘배치한 사진집의 경우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재현뿐 아니라 사진들이 배치되어 있는 맥락도 따져보아야 한다.’¹ 여러 장의 사진을 배치하여 창출하고자 하는 특정한 컨텍스트의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글은 1930년 간행된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이하 『회고이십년』)이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필자의 최근 논저: 「식민지 ‘수도’의 위상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연대기」, 『서울학연구』 66, 2017. 2; 「식민지 인식의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극복을 위한 모색」, 『역사학보』 231, 2016. 9;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1 이경민, 『경성, 사진에 박히다』(산책자, 2008), pp.10-11.

라는 사진집을 살펴보고자 한다.² 이 사진집은 병합 이래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京城 도심부 도로망 정비인 京城市區改正事業의 京城府 이관(1929)을 계기로 그간 조선총독부 京城土木出張所가 시행한 시구개정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책자이다.³ 따라서 이 사진집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병합 후 20여 년간 식민지권력에 의해 '개조된' 경성 시가지의 풍경을 특정한 목적하에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성시구개정사업에 대한 연구는 손정목이 선구적 노작⁴에서 '시구개정'의 연원, 경성시구개정노선의 공포와 수정, 사업의 추진 경과 등의 대강을 정리한 후 그가 그린 시구개정사업의 구도를 보다 정치하게 설명한 김기호, 시구개정을 포함한 일제하 도시 변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비교도시사적으로 조망할 것을 제안한 김백영, 한국측 연구자가 간과한 시구개정의 몇몇 대목을 짚어낸 고토 야스시(五島寧)의 논문 등이 있었으며,⁵ 염복규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1910년대 전반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전개 과정, 1920년대 시구개정의 핵심 사업인 제6호선(일명 '중묘관통선')의 부설 과정, 시구개정사업의 경성부 이관을 둘러싼 논란의 의미 등을 검토했다.⁶

그런데 경성시구개정사업 연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 대부분⁷이 반영된 『회고이십년』의 의미를 검토한 연구는 이경민의 간략한 에세이 한 편⁸

2 朝鮮總督府 內務局 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二十年(1930).

3 경성시구개정사업은 병합 전후부터 공식적으로는 1936년 새로운 도시계획법령인 「朝鮮市街地計劃令」에 의한 京城市街地計劃이 개시될 때까지 지속한 경성 도심부의 도로망 정비 사업이다. 1929년까지는 조선총독부가 직할 국비 시행했으며, 1929년 경성부가 사업을 이관받았다. 일제하 도로망 정비를 뜻하는 '市區改正'이라는 용어는 '市區改修'라는 용어와 혼용되었다. 필자는 京城의 경우, '京城市區改修豫定路線'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 주로 市區改修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글은 주요 소재가 『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二十年』 책자이기 때문에 주로 市區改正 용어를 사용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양자를 혼용했다.

4 손정목, 『日帝強占期都市計劃研究』(一志社, 1990), pp.98-114.

5 김기호,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1995); 김백영, 「왕조 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 경성과 도쿄의 시구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학보』 112(2003); 五島寧, 『日本統治下京城の都市計劃に關する歴史的研究』(東京工業大學 博士學位論文, 1996).

6 염복규, 「1910년대 전반 京城 도심부 간선도로망의 형성 과정과 의미」, 『史學研究』96(2009); 「식민지권력의 도시 개발과 전통적 상징공간의 훼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및 의미」, 『東方學誌』152(2010);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67(2011); 이상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데아, 2016) 1-3장이다.

7 경성시구개정사업의 눈에 띄는 전개는 대부분 조선총독부 직할 시행 중에 진행되었다.

8 이경민, 「경성은 어떻게 재현되었나: 경성시구개정사업과 도시계획사진아카이브」, 『황해문화』45(2004).

외에 전무한 실정이다. 이경민은 이 사료의 개요를 소개하고 시구개정 이전과 이후를 한 쌍으로 대비하여 보여주는 사진집 전체를 관통하는 ‘비교사진술’에 주목했다. 이런 분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올바른 지적이기는 하나, 몇몇 대목에서 선입견에 기초한 단정이 보이거나 표면적인 관찰에 그친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경성의 도시화 양상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읽어보고자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식민지권력이 설정한 경성시구개정사업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를 통해 변화한 경성 도시 공간을 식민지권력은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작업은 『회고이십년』 자체의 사료적 특징을 검토해보는 일이다. 또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주체’에 대해서도 그간의 연구에서는 막연히 ‘일제’ 혹은 ‘조선총독부’로 통칭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짚어보지 않은 『회고이십년』의 사료적 특징과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주체를 살펴본 다음 이를 기초로 『회고이십년』의 각 이미지 및 이미지의 배치를 통해 식민지권력이 재현한 ‘경성의 도시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 『회고이십년』과 조선총독부 경성시구개정사업

1. 『회고이십년』의 사료적 위상과 간행 경위

사료로서 『회고이십년』의 가장 특이한 점은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에 의해 정식 간행된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어디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본 내 도서관에서도 『회고이십년』은 발견된 바 없다. 이 점은 지금까지 누구도 지적한 바 없지만 조선총독부 정식 간행 책자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조선총독부 토목부서가 간행 주체라는 점에서 『회고이십년』이 입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도서관은 조선총독부 도서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 경성고등공업학교 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도서관을 승계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서울시교육청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에 이 사진집은 소장되어 있지 않다. 또 식민지 시기 장서량이 상당한

국회도서관, 지방 공립도서관, 기타 대학도서관 어디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사진집은 오랫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회고이십년』에 수록된 사진이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손정목의 저서를 통해서이다. 그는 이 사진집에 포함된 사진 중 55장을 1990년에 간행한 저서의 권두에 수록했다.⁹ 그는 머리말에서 “日帝治下 朝鮮總督府는 그들이 가장 역점을 두어 시행한 京城市區改正事業의 과정을 사진판으로 묶어 『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二十年』이란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이 사진 중의 일부를 복사하여 卷頭に 실었다”고 했다. 사료의 출처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아마 저자 개인 소장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손정목의 저서에 수록된 사진은 대개 『회고이십년』의 특징인 비교사진술적 배치가 뚜렷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진집 원본과 비교해보면 똑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수는 원본과 동일하나 사진의 일부를 임의로 자르거나 원본에는 상관없이 수록된 사진을 대비시켜 배치하기도 했다. 아마 비교사진술의 효과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원본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니나 한 차례 저자의 의도에 따라 가공한 것만은 틀림 없다.¹⁰

『회고이십년』의 정식 소장처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02~2003년에 와서였다. 일본 혼슈 북단 이와테현(岩手縣) 오슈시(奥州市) 미즈사와구(水澤區)에 위치한 오슈시립사이토마코토기념관(奥州市立齋藤實記念館; 이하 ‘사이토기념관’) 소장 사료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수집 과정에서 오랫동안 원본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진집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다.¹¹ 사이토기념관은 원래 두 차례(1919. 8~1927. 12, 1929. 8~1931. 6)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의 고향 舊邸로서 그가 남긴 사료 중 전후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기증되지 않은 장서 38,000여 권과 각종 유품을 소장하고 있다. 1975년 정식으로 기념관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활발하게 연구에 이용된 헌정자료실 소장 사료와는 달리 사이토기념관 소장 사료는 오랫동안 그 실체의 대강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기념관의 위치가

9 손정목, 앞의 책(1990), p.35.

10 현재도 『회고이십년』에 수록된 사진의 일부는 인터넷매체를 비롯하여 여러 간행물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출처가 어디이며 이 사진이 어떤 목적으로 촬영되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아래의 서술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11 이하 사이토기념관 관련 내용은 필자의 다른 논문(『식민지 도시계획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920년대 조선 도시계획 논의와 1930년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안의 위상 재검토』, 『도시연구』17, 2017)에서 상술했으며, 여기에서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략하게만 언급하겠다.

혼슈 북단의 이와테 현인 데다 관리도 소도시인 오슈시 소관으로 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이트기념관 소장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수집을 통해 비로소 이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회고이십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¹²

『회고이십년』이 사이트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진집이 총독에게 제출되었음을 의미할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는 국내 어떤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개인 소장을 제외하고 기관 으로서는 유일하게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을 뿐인데, 박물관도 2002년 이 사료를 고서 수집가 개인에게서 구입했다.¹³ 따라서 이것도 소장의 연원은 개인이 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진집은 매우 소량 인쇄하여 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부 수뇌부 일부에만 보고된 책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¹⁴

그렇다면 『회고이십년』의 간행 목적, 비교사진술적 배치가 목표로 하는 대상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통 식민지 시기 관련 간행물, 전시물에서 뭔가 식민통치 전후를 비교할 때는 선전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선전의 일차적 대상은 식민지 조선인이었다. 즉 조선인을 향해 식민통치 이전의 ‘낙후한’ 상태와 이후의 ‘발전한’ 상태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각인하려고 한 과정으로 이해된다.¹⁵

그런데 『회고이십년』은 목적이 다른 간행물인 것이다. 이 사진집을 보는 대상은 총독 등 몇몇에 불과하다. 즉 『회고이십년』의 비교사진술적 배치는 대중을 향한

12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MF와 이미지파일 형태로 소장되어 있으며, 관내 열람이 가능하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국외>일본>이와테현 오슈시립사이트마코토키념관(岩手縣奥州市立齋藤實記念館)<奥州市立 齋藤實記念館 소장 자료(사료군 AJP025)>齋藤實記念館 소장 사진 자료(사료계열 AJP025_01)<『京城市區改正事業-回顧20年』(사료철 AJP025_01_00V0096)

13 등록 유물 번호 '서14309'. 현재 박물관 상설전시실 3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seum.seoul.kr/>) 유물 검색 및 박물관 측에 구두 문의(2017. 4. 19).

14 이 점은 식민지 시기 간행된 다른 사진집과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이 시기 언론사나 기타 기관에서 판매용으로 간행된 사진집 외에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관변에서 간행한 사진집의 인쇄 규모 등은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한, 두 가지 사례를 들면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博覽會記念寫真帖』(1930)의 경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영남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또 『朝鮮神宮奉讚會』에서 간행한 『恩賴 - 朝鮮神宮御鎮坐十周年記念』의 경우는 연세대(1937), 독립기념관(1939), 영남대, 호남대(1940) 등 꽤 여러 곳이 소장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경우 1991년 재미교포에게 기증받았다고 한다(2017. 4. 1, 독립기념관 확인). 그에 비해서도 『회고이십년』의 인쇄 수량은 적은 것이 분명하다.

15 예컨대 1915년 개최된 『施政五年朝鮮物産共進會』의 많은 전시물, 조선총독부 간행 『施政二十五年史』(1935)나 『施政三十年史』(1940)에 수록된 사진은 뚜렷하게 비교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형적으로 식민지인을 향한 식민지권력의 선전에 속한다.

선전이 아니라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시행 주체인 식민지 토목관료군, 1930년 현재 구체적으로는 이 사진집의 간행 주체인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가 자신의 사업 경과와 종료를 '기록' 내지는 '기념'하고, 식민지권력 수뇌부를 향해 그 성과를 '보고' 및 '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사진집 간행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의 상당수에 '1930년 촬영'이 명기되어있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¹⁶ '1930년 촬영'을 명기한 사진은 『회고이십년』 간행, 즉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최종 성과를 그들의 입장에서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별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회고이십년』이 다른 사진집과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점을 또 하나 들면 특정한 건축물이나 일반적 풍경이 아니라 대부분 도로 중심의 경관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구개정이라는 도로망 정비의 성과를 담은 사진집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사진집의 간행 주체가 재현하려고 한 것, 보여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 조선총독부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주체와 특징

공식적으로 경성시구개정사업은 병합 직후 조선총독부 국비 사업으로 개시되었다. 이는 이례적인 것이다. 시구개정은 경성뿐 아니라 전국의 도청 소재지에서 대부분 시행되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거의 도 지방비 사업이었다. 따라서 예산 규모도 작았고 대개 도청 앞 간선도로 정도를 개수하는 데 그쳤다.¹⁷ 그러나 경성은 조선총독부의 전국 간선도로 정비인 제1기 治道 공사(1911~16) 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경성시구개정사업을 개시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의 '얼굴'인 경성 도심부 도로망 정비에 상당한 힘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러면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선총독부의 토목부서였다. 1930년 사업 이관 당시는 바로 『회고이십년』의 간행 주체인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이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토목부서는 병합 이후 몇 차례 개편되었다. 병합 당시에는 내무부 지방국 토목과,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 탁지부

16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경우는 33장 중 25장에 달한다.

17 전국 도시 시구개정의 전체상은 朝鮮總督府, 1937 『朝鮮土木事業誌』第六篇 市街整理 참고.

18 이하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전개 과정에 대해 특별한 전거가 없는 것은 엽복규, 앞의 책(2016)에 근거했다.

세관공사와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착안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조였던 셈이다. 이에 초기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토목 부문의 역할을 중시한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의 의증이 작용하여 1912년 4월 토목 관련 부서를 통합한 官房(직속) 토목국이 설치되었다.¹⁹

토목국은 3.1운동 이후 1919년 8월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부임하면서 토목부로 개편되었다가, 1924년 12월 건축 재정 정책에 의한 행정 정리의 결과 폐지되고 급을 낮추어 내무국 토목과와 건축과가 되었다. 두 과는 1926년 6월 토목과로 통합되었다. 이후 8.15 때까지 조선총독부 토목 행정은 내무국 토목과가 최고 총괄 부서였다.²⁰ 이상과 같은 토목부서의 변화 과정에서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직접 시행 주체는 매 시기 토목부서의 장관이 직할하는 경성토목출장소였다.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구체적으로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인가? 물론 최고위급으로 총독이나 정무총감 등을 들어야겠으나,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생략하고 먼저 1910~20년대 토목부서의 전임 장관이었던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자.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1912~17년 초대 토목국장 모치지 로쿠사부로(持地六三郎), 1921~24년 토목부장 하라 시즈오(原靜雄), 1925~39년 내무국 토목과장 신바 고헤이(榑葉孝平) 등 3명을 들 수 있다.²¹

3명 중 모치지는 법학 전공의 일반 내무관료 출신이나 다년간 타이완에서 식민지 ‘개발’ 행정에 종사한 인물로서 병합 초기 토목 행정을 강력하게 리드하기 위해 초빙한 인물이다. 1910년대에는 데라우치의 관심과 모치지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진 토목 관료를 지속적으로 초빙했다. 나머지 2명은 다 도쿄제대 공대 출신으로서 하라는 기술관료 출신의 첫 토목부서 장관이었다. 그가 토목부장으로 재임하던 1920년대 전반 토목부서에서는 행정관료를 제치고 기술관료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한다. 끝으로 신바는 앞에서 언급한 1910년대 ‘내지’에서 초빙한 엘리트 중 한 사람으로 1920년대 중반 이래 30년대 말까지 조선총독부 토목 행정을 좌우했다.²²

19 이하 조선총독부 토목부서의 변천과 토목관료에 대해서는 廣瀬貞三, 「朝鮮總督府の土木官僚」,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思文閣出版, 2009), pp.260-267 참고.

20 1941년 11월 내무국이 司政局으로 개편되었으나 토목과의 위계는 변하지 않았다.

21 1917년 모치지가 체신국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토목국장은 잠시 내무부장관 우사미 가츠오(宇佐美勝夫)가 겸임했다. 또 사이토가 부임하여 토목국을 토목부로 개편한 후 하라가 부임할 때까지는 식산국장으로서 도한한 니시무라 야스기치(西村保吉)가 부장을 겸임했다.

22 이들의 구체적 이력은 표1 참고.

그 밖에 1910~20년대 조선총독부 토목부서의 기술분야 고등관인 技師급을 경성시구개정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추정하여 정리해 보았다.^{표1}²³ 이들 각각의 특징이나 성향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하나 지적할 만한 점은 43명 중 최종 학력이 파악되는 인물 28명 중 21명이 도쿄제대와 교토제대 공대 출신이며, 특히 경성토목출장소 기사는 전원 제국대학 출신자라는 사실이다.

표1 <1910~30년 조선총독부 주요 토목관료 일람>

성명(생몰년)	주요 이력
모치지 로쿠사부로 (持地六三郎, 1867~1923)	도쿄제대 법대 졸업, 1893~1900 대장성, 내무성, 각 현 고등관, 1900~12 타이완총독부 참사관, 지방과장, 학무과장, 통신국장 등, 1912~17 조선총독부 토목국장, 1917~20 체신국장관
사카이데 나루미 (坂出鳴海, 1876~1928)	도쿄제대 공대 졸업, 대장성 기사, 1906 대한제국정부 초빙, 1910~19 조선총독부 지방국, 토목국 공무과, 토목과 기사, 1923 남조선철도 사장, 1926 오사카시 도시계획부장
야마오카 겐이치 (山岡元一)	1911~15 조선총독부 지방국, 토목국 공무과, 토목과 기사, 1915~17 체신국 전기과 기사, 1913.7. 유럽 도시 토목사업 시찰 (『京城日報』 1914.4.29.)
히키타 겐카메 (疋田玄龜, 1873~?)	1898 도쿄고등공업학교 졸업, 1907 대장성 기사→대한제국 정부 초빙, 1910~23 조선총독부 탁지부, 토목국 토목과, 토목부 토목과, 건축과, 경북궁토목출장소 기사
오쿠야마 요시카즈 (奥山嘉一)	1911~13 조선총독부 지방국, 토목국 공무과 기사, 1913 경기도 도기사
오가와 에이지로 (小川英次郎)	1912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 기사, 경기도 도기사
스즈키 사카테츠 (鈴木坂鐵, 1873~?)	1901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06 대한제국 정부 초빙, 1910~28 조선총독부 지방국, 토목국 공무과, 토목과 기사, 토목부 공무과장, 내무국 토목과 기사
혼마 다카요시 (本間孝義, 1885~?)	1910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13~38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 토목과, 내무국 토목과 기사, 우방시리즈《朝鮮の國土開發事業》(1968) 공저
노구치 고이치 (野口耕一, 1881~?)	1907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08 도호쿠제대 교수, 1913~1930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 원산토목출장소, 내무국 토목과 기사
나카이 마츠지로 (永井松次郎, 1876~?)	1899 제3고 공학부 졸업, 1905 대장성 기사, 1910~20 조선총독부 인천토목출장소, 토목국 공무과, 토목부 토목과 기사

23 일제하 관료 체계는 먼저 高等官과 判任官으로 나뉘며, 고등관은 다시 勅任官(고등관 1, 2등)과 奏任官(고등관 3~9등)으로 나뉜다. 기술관료의 경우는 크게 고등관에 속하는 技師와 판임관에 속하는 技手로 나뉜다.

사마자키 다카히코 (島崎孝彦, 1877~1972)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00 기후현 기사, 1911~22 조선총독부 토목국, 경성토목출장소, 토목부 기사, 1917.3.17.~1922.6.16.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1930년대 오사카시 수도부장, 수상록《月世界の水を飲むまで》(1968) 간행 『朝鮮總督府官報』1917.3.22., 1922.6.21.)
야시마 아키라 (八島明, 1880~?)	1908 교토제대 공대 졸업, 1909 대한제국 정부 조빙, 탁지부 기사, 1911~14 조선총독부 토목국 청주, 원산, 청진출장소장, 1915~20 경성 토목출장소 기사, 1917.3.~1920 경성토목출장소장
이케다 다이지로 (池田泰治郎, 1883~?)	1908 도쿄제대 농대 졸업, 1912~14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농무과 기사, 1914~20 토목국 토목과 기사, 1922~31 식산국 토지개발과, 토지개발부 수리과 기사
나가노 신 (中野深, 1878~?)	1904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10~17 조선총독부 철도국 건설과, 토목국 토목과 기사(한강 인도교 설계) 1917~ 남만철 경성관리국
오시마 만이치 (大島滿一, 1889~?)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13~20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 토목과 기사, 전기『大島滿一翁傳』(1965) 간행
하나이 마타타로 (花井又太郎, 1886~?)	1913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15~17 조선총독부 토목국 토목과,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1918~20 경기도 도기사
요코이 조지 (横井増治, 1888~?)	1913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14~41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 토목과, 내무국 토목과, 부산토목출장소, 사정국 기사, 1942~43 경성제대 교수
도요타 시로 (豊田四郎, 1870~?)	1898 육지측량부修技所 졸업, 1910~2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토목부 토목과 기사
나카무라 데츠오 (中村哲夫, 1892~?)	1917 도쿄제대 농대 졸업, 1920 조선총독부 토목국 토목과 기사, 1921~27 식산국 토지개발과 기사
가와사와 아카마사 (川澤章明, 1892~?)	1917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20~33 조선총독부 토목부 공사과, 이리토목출장소 기사, 1934~43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니시 요시카즈 (西義一)	1919~20 조선총독부 토목부 기사,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수
하라 시즈오 (原静雄, 1871~?)	1894 도쿄제대 공대 졸업, 1898~1920 내무성 및 각 현 기사, 1921~24 조선총독부 토목부장, 1924 요코하마시 항만부장
오호 이사오 (於保績)	1921~23 조선총독부 토목부 토목과, 공사과 기사
마츠야마 요시오 (待山義雄, 1890~?)	1917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20~43 조선총독부 토목부 토목과 사리원토목출장소, 평양토목출장소, 초량토목출장소, 부산토목출장소 기사, 1929~30 구미 출장
마츠오 다헤에 (松尾太兵衛, 1890~?)	1916 도쿄고등상선학교 졸업, 1919~29 조선총독부 토목부 공사과 기사, 1930~43 체신국 기사
히게타 겐지로 (樋下田謙治郎)	1922 조선총독부 토목부 공사과 기사, 1923~25 경성부 부기사

니시카와 엔기(西川延喜)	1921~23 조선총독부 토목부 토목과, 공사과, 평양토목출장소 기사
모리타(森田焯次)	1923 조선총독부 토목부 기사
마루야마 요시키 (丸山芳樹)	1923~25 조선총독부 토목부, 내무국 기사, 1926~27 부산토목출장소 기사
가토 료헤이(加藤療平)	1924 조선총독부 토목부 공사과 기사
다케이 군지로 (武居軍次郎)	1921~23 조선총독부 토목부 부산토목출장소 기사, 1924~33 내무국 토목과 기사, 1934~43 이리토목출장소, 내무국 토목과, 철도국 기사
오쿠다 쇼지로 (奥田定一郎)	1922~33 경성고등공업학교교수, 조선총독부 토목부 공사과, 내무국 토목과, 철도국 공무과 기사
이와기 신타로 (岩城信太郎, 1873~?)	1901 교토제대 공대 졸업, 1907 대한제국 정부 초빙, 1910~20 조선총독부 토목국 진남포, 평양만, 인천, 부산출장소 기사, 1921~22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1922~24 토목부 공사과 기사, 1925~31 경성부 기사
츠보이 도요히코 (坪井豊彦)	1920 전북 도지사, 1921~22 조선총독부 토목부 기사, 1923~25 경성토목출장소 기사(1924.12.25. 경성토목출장소장 임명) (『朝鮮總督府官報』1925.1.8.)
신바 고헤이 (榎葉孝平, 1879~?)	1903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07 대장성 기사, 1911~25 조선총독부 부산토목출장소장, 1922 구미 출장, 1925~39 내무국 토목과장, 우방시리즈『朝鮮の國土開發事業』공저
혼마 도쿠오 (本間徳雄, 1889~?)	1915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18~21 조선총독부 토목국 토목과 기사, 1922~23 대동강출장소 기사, 1924 토목부 기사, 1925.4.6.~32 경성토목출장소장, 우방시리즈『朝鮮の國土開發事業』공저 (『朝鮮總督府官報』1925.4.8.)
나가사토 에이니 (長郷衛二, 1895~?)	1919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21~25 내무성 니가타토목출장소 기사, 1926~30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1931~36 원산토목출장소장, 1936~39 경성부 공영부장, 1940년대 조선주택영단 이사
후지와라 겐지 (藤原健二)	1924~26 충남 토목과장, 1927~30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1931~34 평양토목출장소장
후쿠니시 마사오 (福西正雄, 1901~?)	1926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27~33 경성토목출장소 기사, 1934~38 내무국 토목과 기사, 1939~43 평양토목출장소 기사
야마오카 게이스케 (山岡敬介, 1897~?)	1922 도쿄제대 공대 졸업, 1924~26 내무국 토목과 기사, 1927~29 초량토목출장소 기사, 1930~43 내무국 토목과, 철도국 감독과, 경무국 경무과 기사
야시마 시케루(八島茂)	1927~31 내무국 토목과 기사, 1932~37 초량토목출장소, 평양토목출장소 기사
나카야마 사야키 (中山千秋, 1887~?)	1914 교토제대 공대 졸업, 1918~26 체신국 기사, 1927~29 내무국 토목과 기사, 1930~31 초량토목출장소 기사
구로타 요시카즈 (黒田嘉一)	1928 내무국 토목과 기사

요컨대 『회고이십년』은 당시 일본 최고 수준의 엘리트 기술자 집단이 기획·집행한 경성 도시화의 실상을 재현한 것으로 그것을 자기들 내부에서 공유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한 경관이나 그에 대한 설명이 식민지인의 민족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기술력을 내세우는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러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회고이십년』의 이미지를 몇 갈래로 분류하여 살펴보자.

III. 『회고이십년』의 구성과 재현 전략

1. 경성 시가지 변화의 전반적 조망과 ‘일본인 도시’의 상징성 드러내기

『회고이십년』은 사업의 경과를 설명한 권두의 「경성시구개정사업개요」와 1930년 현재 경성부의 세입출, 호구, 사회, 산업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 「경성부세요람」을 제외하면 모두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상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1쪽에 사진 1장이 수록되어 있으나 1쪽에 2장이 배치된 경우도 있어 사진은 총 105장이다. 본문은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성과를 담은 것이며, 부록은 그에 구애 받지 않고 1930년 현재 경성 시내의 주요 지점, 건축물을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문은 시구개정사업 전후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많으며, 부록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대략 비교사진술적 배치가 2/3, 그렇지 않은 것이 1/3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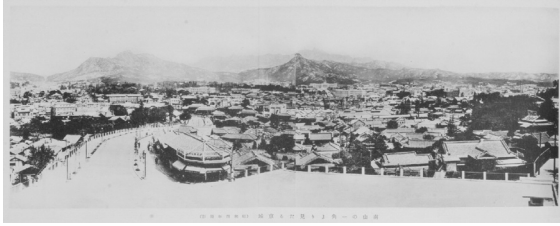
비교사진술적 배치가 분명한 사진은 네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먼저 경성 시가지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서론’ 격의 사진이다. 남산 朝鮮神宮²⁵에서 전망한 시가지를 파노라마로 담은 모두의 1-1, 1-2²⁶는 『회고이십년』 전체를 관통하는 재현 전략을 잘 보여준다²⁷. 말끔하게 정비된 신궁 參道²⁷, 곳곳에 들어선 고층 건물과

24 물론 이런 점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컨대 1920년대 후반 경성토목출장소장을 지낸 혼마 도쿠오(本間德雄)는 후일 이 시기 시구개정 중 가장 민감한 공사였던 제6호선의 창덕궁·창경궁-종묘 통과 구간에 대해 총독 사이토마저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상당히 주저하는데 반해 자신은 “단연 해낼 작정”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本間德雄, 「朝鮮の土木事業について」, 『朝鮮の國土開發事業』, 友邦協會, 1968). 문화통치 시기 식민지민의 여론, 민족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총독부 수뇌부에 대해 오로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엘리트 토목관료의 마인드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25 현재 한양도성 회현자락 안중근의사기념관 자리.

26 이하 사진의 번호는 표2의 연번임.

27 조선신궁 참배를 위한 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참도 자체를 찍은 사진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양식 가옥, 원경 중앙에 보이는 랜드마크 총독부 신청사와 조밀하게 들어찬 나즈막한 초가집들, 랜드마크로서 궁궐의 대비는 교과서적으로 선명하다.

이런 대비는 4-1, 4-2에서도 반복된다. 이 사진도 남산에서 총독부 신청사(경복궁) 방향을 바라본 구도이다. 그리고 식민지화 이후 개발의 '성과'를 보여주는 측면은 1920년대 중반 뚜렷하게 경성의 중심점이 된 경성부청 앞(2), 일본인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지역의 상징 本町(현재 충무로) 중심 항공사진(3)에서 더욱 강화된다.

그런데 본정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구개정사업과는 무관하다. 본정통은 물론 시구개정예정노선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수 재경성 일본인 유력자의 생활과 활동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신속한 정비를 바라는 목소리도 어디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나 시구개정사업에서 뚜렷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인 定住가 시작된 만큼 이미 병합 이전부터 일본인 거류민단에 의해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졌고,²⁸ 그만큼 지가도 높고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고이십년』은 본정 입구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10-1, 10-2)도2, 부록에서도 다시 한 번 본정통을 경의 '명소로 드

1
남산 일각에서 본 경성
(1929/1905)

*1. 특별한 출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모두 『회고이십년』 수록 사진임.

*2. () 안의 연도는 사진 촬영 연도이며, [] 안의 연도는 도로 정비 연도임.



2
본정1정목 입구
(1929/1898)

28 병합 이전 본정의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스페이스타임, 2015)에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러내고 있다(39).

이는 『회고이십년』이 경성토목출장소의 사업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집이지만 본정=일본인 경성의 상징이라는 무의식이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²⁹ 그런데 반대로 사진집의 이런 구성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식민지 시기 본정의 지속적인 개발과 정비’의 ‘신화’를 반영한다. 본정은 일찍이 일본인 중심으로 개발된 경성 변화가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병합 당시 쉽게 손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탓에 시구개정 같은 공식적인 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측면도 있다. 그리하여 이름만큼 화려하지 못해 외부의 방문객에게는 실망감을 안겨 주기도 했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을 대표하는 변화가로서 본정의 위상은 당대에서 현재까지, 조선인 민중에서 엘리트 식민지 관료에 이르기까지 ‘공감’되고 있었던 것이다.

표2 <『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二十年』 수록 사진 일람>

연번	제목	연번	제목
1-1	남산의 일각에서 본 경성(1929)	30-1	서대문 부근(1915[1930])
1-2	남산의 일각에서 본 경성(1905)	30-2	서대문 부근(개수전/1914)
2	경성부청 중심 시가지조감도(1929)	31-1	서소문 부근(1914[1930])
3	본정 중심 시가지조감도(1929)	31-2	서소문 부근(1905)
4-1	경복궁 방면을 멀리 바라봄(1929)	32-1	경성역 봉래정 분기점(1921[1930])
4-2	경복궁 방면을 멀리 바라봄(1902)	32-2	경성역 봉래정 분기점(1919)
5-1	남대문(1908[1930])	33-1	봉래교 부근(1922/[1930])
5-2	남대문(1905)	33-2	봉래교부근(개수전/1919)
6-1	태평통(1912[1930])	34-1	의주통봉래정교차점(1914, 1919[1930])

*1. 연번은 필자가 붙인 것이며, 같은 장소를 시간의 선후를 두고 촬영했거나, 상호 관련된 사진의 경우 '몇번-몇번'으로 번호를 붙임.
*2. [1930]은 사료에 '1930년 촬영'이라고 명기된 경우임.

29 三坂通(현재 후암동)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여겨진다(43-1, 43-2). 삼판통은 용산 일본인 거주의 효시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도 특별히 시구개정사업이 시행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때문에 굳이 사진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30 예컨대 1923년 경성을 방문한 일본인 저널리스트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는 “(경성에 와보니) 계다가 시가도 혼잡했다. 남대문 같은 곳도 있고, 종로 같은 곳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상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곳(본정통)도 있다”고 하여 본정이 남대문통이나 종로에 비해 초라하다는 감상을 드러냈다(田山花袋, 1923 『滿鮮の行樂』; 이한정, 미즈노 다쓰로 편역, 2009 『일본 작가들이 본 근대 조선』 소명출판, p.214). 식민지권력은 1930년대 후반 본정 자체의 정비를 포기하고 그와 평행하게 새로운 도로를 뚫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1939년 본정통과 평행하게 개착한 신도로 소화통(昭和通; 현재 퇴계로)이 준공하면서 본정은 도로 위계상 ‘이면 도로’가 되었다.

6-2	개수전의태평통(1911)	34-2	의주통(개수전/1919)
7-1	남대문 동측의 일부(1925[1930])	35-1	강기정(1923[1930])
7-2	남대문 동측의 일부(1905)	35-2	강기정(1922)
8-1	참궁도로 1(1925[1930])	36	경성역 부근([1930])
8-2	참궁도로 1(1923)	37	조선신궁 표참도
9-1	참궁도로 2(1925[1930])	38	조선신궁
9-2	참궁도로 2(1923)	39	경성 본정통
10-1	본정1 정목 입구(1929)	40-1	한강철교
10-2	본정1 정목 입구(1898)	40-2	한강 채빙
11-1	남대문통 황금정 교차점(1916[1930])	41-1	한강인도교(파괴)
11-2	남대문통 황금정 교차점(1915)	41-2-1	한강인도교(복구)
12-1	황금정통(1913[1930])	41-2-2	한강인도교(복구)
12-2	황금정통(1913)	42-1-1	한강 대홍수의 참상
13-1	광화문통의 금석([1930])	42-1-2	한강 대홍수의 참상
13-2	광화문통의 금석(1905)	42-1-3	한강 대홍수의 참상
14-1	영추문 부근(1925)	42-2-1	용산 신방수제(1929)
14-2	영추문 부근(1905)	42-2-2	용산 신방수제(1929)
15-1	충독부 앞길(1928[1930])	43-1	삼판통
15-2	충독부 앞길(개수중)	43-2	삼판통(옛날)
16-1	중학동 부근([1930])	44	경성신사(1929)
16-2	중학동 부근(1924)	45	조선충독부(1925)
17-1	안국동정류소 부근 (1922[1930])	46	경성토목출장소(1929)
17-2	안국동정류소 부근	47	경성부청(1926)
18-1	대안동통 (1922[1930])	48	경성역(1925)
18-2	대안동통 개수중의 광경	49	경성우편국(1915)
19-1	원남동 부근(1929)	50	남산공원
19-2	원남동 부근(개수전)	51	경성운동장(1925)
20-1	효제동 부근(1929)	52	장충단공원
20-2	효제동 부근(개수전)	53	파고다공원
21-1	경성대학통(1929)	54	경성제대
21-2	경성대학통(개수전)	55	경성제대 부속병원

22-1	동대문([1930])	56	경복궁 경회루
22-2	동대문(1905)	57	경복궁 향원정
23	동대문밖 길(1918)	58	창경원의 수정과 식물원
24-1	종로통 원망([1930])	59	창경원의 벚꽃
24-2	종로통원망(1915)	60	마포
25	돈화문통 대화정 부근(1918[1930])	61	마포가도
26	돈화문통 관수교(1918)	62	동대문밖
27-1	영락정통 1(1917[1930])	63	동소문밖
27-2	영락정통(1917 개수전)	64	청량리
28-1	영락정통 2(1917[1930])	65	독립문밖
28-2	영락정통 2(1917 개수전)	66	세검정
29-1	서대문통(1915[1930])	67	청계천
29-2	서대문통(1915 개수전)		

2. 남북의 연결 혹은 ‘남촌 개발’: 1910년대 시구개정사업의 ‘성과’

다음으로 『회고이십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경성시구개정사업에 의해 정비된 특정 도로의 경관을 전후 비교한 사진이다. 이것은 물론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데, 다시 1910년대 정비분과 1920년대 정비분으로 나뉜다.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시구개정사업을 정리하면 공사가 많이 진척된 시기는 단연 1910년대이다. 현재까지도 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성 도심부의 주요 간선도로는 대개 1910년대에 의미 있는 정비 실적을 보였다.

『회고이십년』에 수록된 1910년대 시구개정사업의 ‘성과’는 문헌 자료에서도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남대문-남대문정거장(경성역) 구간, 태평통(현재 태평로), 남대문통(현재 남대문로), 황금정통(黃金町通; 현재 을지로), 서대문통(현재 새문안로), 서소문통(현재 서소문로), 돈화문통(현재 돈화문로) 등이다(5-1, 5-2, 6-1, 6-2, 11-1, 11-2, 12-1, 12-2, 25, 26, 29-1, 29-2, 30-1, 30-2, 31-1, 31-2).

이 도로들은 남촌의 핵심 상업 가로인 황금정통을 제외하면 대체로 도심부와 외곽 혹은 도심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들이다. 남북의 연결이란 결과적으로 병합 이전부터 어느 정도 도로 형태가 보이는 북촌의 도로를 남촌으로 연장하는 것이었



3

태평통
(1930[1912]/1911)
*좌측 사진에서 왼쪽이
태평통이며, 오른쪽은
남대문통임.

다.³¹ 시구개정사업은 ‘남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평통은 ‘서울의 관문’인 남대문에서 경복궁을 직결하는 도로로서 조선시대 종로에서 남대문까지 소로에 불과했던 것을 메인 도로화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태평통과 남대문통의 분기점인 남대문 부근에서 촬영한 6-1, 6-2에서 이런 점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³² 우측 사진에서 중앙의 소달구지 부근(○)이 태평통 입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공사 전까지 최소한의 도로 형상도 불명확한 ‘골목길’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1913년 시구개정공사 풍경을 담고 있는 황금정통(12-1, 12-2)도 마찬가지이다. 황금정도 조선시대까지 시가화의 단초가 전혀 없다가 병합 전후 본정에서 ‘북진’한 일본인 상인 세력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상업 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금정통의 정비도 대대적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시구개정에서는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었다. 이와 관련한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도성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1914~15년 시구개정의 주요 공사로 도심부와 서쪽 외곽 주요 도로인 의주통(현재 의주로)을 연결하는 서대문통(29-1, 29-2, 30-1, 30-2), 서소문통(31-1, 31-2)이 부설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사로 경희궁 흥화문의 방향이 틀어졌으며(동향→남향),³² 서대문과 서소문이 철거되었다. 왕조 수도, 전통 성곽도시의 상징인 ‘문’이 사라진 길을 달리는 전차 대 문과 성곽으로 가로막힌 길

31 주지하듯이 식민지 시기 북촌, 남촌이라는 용어는 청계천 북쪽, 남쪽이라는 의미로 대개 경성 도심부에서 조선인 중심지, 일본인 중심지의 의미로 쓰였다.

32 흥화문은 1932년에는 남산록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는 사찰 博文寺를 건립하면서 아예 그 정문으로 옮겨졌다. 광복후에도 한동안 박문사 자리에 건립된 신라호텔의 정문으로 사용되다가 1994년 경희궁지 발굴·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돌아왔다.(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은 살아있다』, 서울 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도록, 2015, p.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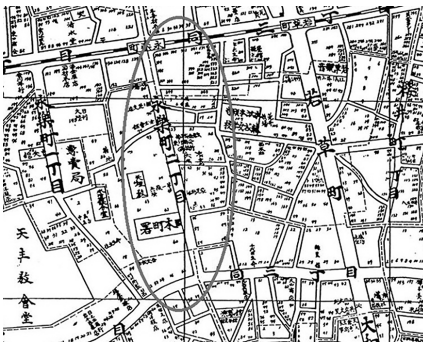
의 대비도⁴는 식민지 근대의 '효율'³³에 의한 전통의 압도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회고이십년』에서 조선총독부의 엘리트 기술자들이 시구개정사업의 성과로 (내부적으로) 무엇을 더 강조하려는지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돈화문통의 경우 도로의 남쪽 기점인 대화정(현재 필동)에서 북쪽을 조망한 사진(25)과 북상하여 도로 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부설한 청계천 관수교 앞 사진(26)이 있다. 대화정-창덕궁 돈화문 앞 구간의 돈화문통은 1910년대 정비한 대표적 남북도로이다. 이 두 장의 이미지의 촬영 위치와 방향은 돈화문통이 남촌의 일본인 세력이 북촌으로 진출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또 『회고이십년』에서 문헌 사료 중심 연구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영락정통(永樂町通; 영락정2정목, 현재 수표로의 일부, 영락정은 현재 저동)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황금정-본정 구간의 영락정통은 문헌 사료에서는 공사 과정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또 현재 도로 위계에서 메인 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시구개정사업의 주요 성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회고이십년』은 1917년 정비한 영락정통의 경관을 황금정→본정(27-1, 27-2), 본정→황금정(28-1, 28-2) 양방향으로 보여주며 이 도로를 황금정과 본정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부각하고 있다. 역시 넓은 의미에서 '남촌 개발'의 성과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를 통해서도 식민지 시기에는 영락정 2정목 도로(영락정통)가 명동성당 앞을 지나가는 영락정 1정목(현재 삼일대로의 일부)에 비

33 서대문의 경우 "존치를 바라는 鮮人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비용 문제로 철거해야 한다는 서대문경찰서장의 보고가 남아있다(「1914년 12월 22일, 市區改正圖面送付ノ件, 土木局長→京畿道長官, 警務總長, 逡信局長, 京城府尹, 西大門署長」, 『京城市區改正關係(CJA0012926)』). 조선인의 여론은 비용 문제라는 효율성의 잣대 앞에 무력한 것이었다.



5

영락정동

(1930[1917])

* 1. 상단 좌측은 촬영지점
황금정. 우측은 본정으로서
사진 왼쪽의 벽돌조
건축물이 본정경찰서(현재
중부경찰서 자리).

* 2. 하단 좌측은
京城精密地圖(1933. 4.
1/4,000), 우측은 현재

해 주요 도로임을 알 수 있다.³⁴ 이렇게 사진은 문헌이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날과는 다른) '당대의 감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3. 북촌 개발 혹은 '일본인의 복진': 1920년대 시구개정사업의 '성과'

문헌 사료로만 파악하면 1920년대 시구개정사업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성과가 덜한 듯 보이나 『회고이십년』은 그렇지 않음을 알려준다. 시구개정에 의한 경관의 변화가 상당한 것이다.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1910년대의 남촌 개발에 대비하여 20년대는 북촌 개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1910년대 시구개정을 통해 남북간 연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며 더 중요하게는 총독부 신청사 준공이 상징하듯이 그간 남촌에 머물러 있던 주요 기관의 북촌 이전이 임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34 현재 지도에서는 두 도로의 위계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경부고속도로를 부설하면서 서울 기점인 제3한강교(현재 한남대교)-남산 1호터널과 접속하는 삼일로(식민지시기 소로였던 영락정 1정복 도로)가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회고이십년』에도 총독부 신청사 준공과 관련한 경관 변화를 담은 사진이 많다. 광화문통(현재 세종대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것(13-1, 13-2)이 물론 그러하며 특히 경복궁 서쪽, 동쪽, 전면의 변화를 부분 별로 비교한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그만큼 그 일대 변화가 격심했음을 반영한다.

서쪽 영추문 부근(14-1, 14-2)의 정비는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부업품공진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공진회장의 정문이 영추문으로 결정되면서 1923년 10월 광화문 앞에서 영추문까지 전차노선이 연장되었다.³⁵ 이에 더하여 총독부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대구모 관사도 설치되었다. 비슷한 시기 동쪽 안국동, 송현동 일대에는 조선식산은행 관사가 대구모로 들어섰다. 이에 이 부근의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복궁 궁장이 훼손되고 동십자각이 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 변화도 있었다(16-1, 16-2).

그리고 안국동 일대의 개발과 맞물려 1923~24년 종로-안국동-광화문 앞 구간의 전차노선도 연장되었다. 경성 전차 안국동정류소 부근(17-1, 17-2), 안국동-종각 구간(현재 우정국로; 18-1, 18-2)의 경관을 비교한 사진은 일대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장소를 종로→안국동, 안국동→종로 양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시구개정 성과로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³⁶ 좌측 사진의 중앙으로는 1920년대 새롭게 들어서기 시작한 조선식산은행 사택촌이 보이며(○, 현재 송현동 광장), 오른쪽으로는 이른바 안국동 별궁(□, 현재 풍

6

안국동 정류소 부근과
대안동통
(1930[1922])

* 비교: 좌측 안국동정류소
부근(종로-안국동), 우측
대안동통(안국동-종로)



35 최인영, 『서울지역 電車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60.

36 물론 총독부(경복궁) 전면도 당연히 개수되었다(15-1, 15-2). 그러나 개수 시점이 1928년인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양측의 주택지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앞길의 정비는 나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여고 자리)이다. 전차선로는 현재 안국동 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광화문 앞으로 가고 있다.

다음은 종로이다. 주지하듯이 종로는 조선 건국 이래 줄곧 ‘국중의 대로’였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남춘의 본정, 황금정 등에 대비하여 ‘조선인 경성의 상징’ 같은 곳으로 이해된다. 식민지 권력은 1920년대 들어오면서 눈에 띄게 종로의 정비를 서둘렀다. 총독부 신청사 준공, 이전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실상 종로의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부근을 담은 사진(22-1, 22-2)이나 동대문 누상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변화한 경관을 조망한 사진(24-1, 24-2) 등은 이 시기 종로의 변화한 경관을 보여준다.

그런데 종로의 경우 정비된 경관이 담아내지 못한 것을 읽어야 한다. 이 무렵 종로의 시구개정과 더불어 지가가 상승했으며, 이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일본인 상인 세력의 종로 진출도 또한 가시화되었다. 그리하여 자본력에서 열세인 조선인 상점은 원래 입지했던 도로 전면에서 후퇴하여 지가가 낮은 이면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1925년의 한 기사는 이런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말끔하게 정비된 종로 경관의 이미지가 감추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1910년대 시구개정사업으로 정비된 남북 도로를 통한 ‘일본인의 북진’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다.

종로통 도로 개수에 따라 그 양측에 늘어선 조선인의 상점과 가옥들이 간혹 도로의 넓힘으로 인하여 헐려버리는 비경에 빠진 곳이 십수개소나 되는 중 이들 헐 집터에는 역시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단층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중략) 원래 경제력이 부실한 조선 사람이 그 집들을 헐고 과연 이층 이상의 高頭를 세울만한 資力이 있을는지가 의문인 중 (중략) 그 전부터 종로 큰거리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고자 갖은 간악한 수단을 두루 써오든 일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을 헐 조선인들을 감언이설로 충동시키어 그 땅을 전부 자기의 수중에 넣고자 암중비약을 한다 하여 아직까지 조선인의 위태한 발을 붙이고 있는 종로의 거리나마 속절 없이 저들 일인의 소유가 되고 말려 한다.³⁷

한편 식민지 시기 경성의 도시 건축에서 1925~26년은 기념비적인 해이다. 총독부 신청사를 비롯하여 식민통치의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이 일제히 준공했기 때

37 「鐘路道路改修와 日本人의 北進」, 『朝鮮日報』, 1925. 6. 18.

문이다. 1925년 준공한 경성역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1920년대 전반 시구개정에서 경성역 부근의 정비가 많은 것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다. 『회고이십년』은 남대문 누상에서 촬영한 경성역.봉래정(蓬萊町; 현재 봉래동) 분기점(32-1, 32-2), 봉래교³⁸ 부근(33-1, 33-2), 경성역-용산 구간의 강기정(岡崎町; 현재 갈월동, 35-1, 35-2), 경성역으로 향하는 메인 도로(36) 등의 변화한 경관을 보여준다.³⁹

또 하나 1920년대 경성 도심부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창덕궁 동쪽, 즉 한양도성의 동북부 지역이 개발된 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까지 도성내의 대표적인 미개발지역이었다. 그리하여 병합 이후 동숭동, 연건동 일대에는 1910년대 후반부터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국립전문학교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하여 1926년 경성제국대학 본과가 개교한 것은 이 지역 개발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다.

학교 캠퍼스는 물론이거니와 교직원 관사, 기숙사, 관련 상점가,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이 일대는 완전히 ‘도시화’되었다.⁴⁰ 이른바 “신문화촌”으로 탈바꿈한 것이다.⁴¹ 원남동 부근(19-1, 19-2), 효제동 부근(20-1, 20-2), 경성대학동(21-1, 21-2) 등을 담은 사진은 이 일대의 변화한 경관을 여러 장소에서 보여준다.⁴²

마지막으로 특기할 것은 『회고이십년』에는 1925년 준공한 남산 조선신궁 참도의 공사 전후를 비교한 사진이 여러 장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신궁 참도 부설은 사실 시구개정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조선신궁 건립이 1920년대 들어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식민통치의 ‘영구한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일본 본토 밖의 유일한 官弊大社로서 건립한 조선신궁의 위상⁴³을 고려할 때 식민지권력은 조선신궁 건물뿐 아니라 그 참배를 위한 도로(參道)의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서 시구개정사

38 중구 의주로2가 염천교 동쪽 부근에 있던 다리로서 196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2009) 참고.

39 넓은 의미에서는 남대문 동측 일부(7-1, 7-2)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40 조선시대~1920년대 한양도성 동북부 지역의 변화와 학교 입지에 대해서는 주상훈, 「일제강점기 경성의 국립 학교 입지와 대학로 지역의 개발 과정」, 『서울학연구』46(2012); 유슬기,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 형성 과정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87-95 참고.

41 「櫻桃園에 文化村 주택지로 개발」, 『中外日報』, 1927. 5. 24.

42 원남동 부근: 병원동-중앙시험소(현재 창경궁로-대학로 방통대 역사관), 효제동 부근(대학로의 종로쪽 어귀), 경성대학동(경성제대 법문학부와 의학부 사이 개천, 현재 대학로).

43 官弊大社는 신사 중 가장 높은 사격으로 조선신궁에는 이런 사격에 걸맞게 신화 속의 일본 민족 시조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 천황이 祭神되었다.; 이상 조선신궁의 건립과 의미에 대해서는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13(2015) 참고.



7
 참궁도로
 (1930[1925]/1923)
 * 1. 표참도
 남대문→조선신궁 방향
 * 2. 좌측 사진의 붉은 원
 표시가 조선신궁

업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신궁 참도의 정비를 경성토목출장소의 중요한 '임무'이자 '업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신궁 참도는 表參道(남대문[경성역]→조선신궁), 동참도(본정→조선신궁; 현재 소파로), 서참도(용산→조선신궁; 현재 소월로)의 세 갈래인데 『회고이십년』은 '경성의 현관'인 남대문(경성역)에서 신궁 정면에 다다르는 표참도를 남대문→조선신궁 방향(8-1, 8-2, 37),⁴⁷ 조선신궁→남대문 방향(9-1, 9-2), 조선신궁 중광장→상광장 방향(38) 등 여러 각도에서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만큼 참도 정비의 성과를 더 인상적으로 각인한다. 사진에서도 보차도까지 분리하는 등 대대적 정비의 모습이 뚜렷하다

4. 을축대홍수의 피해와 복구: 식민지 토목행정 자원의 차별적 분배

도시 공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는 권력의 지향이나 인간의 의지만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작용이야말로 어떤 경우 공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일의 변수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 경성의 도시 공간에 '충격'을 준 중대한 '사건'은 이른바 乙丑大洪水였다. 1925년 7월 경성 일원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며칠 간의 집중호우로 강수량은 753mm에 달했다.⁴⁴ 폭우로 한강이 범람하여 경성 동남부 이촌, 뚝섬, 송파, 잠실 일대는 사라지다시피 했으며, 용산, 마포 일대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 4,625만원, 기록된 익사자만 404명에 이르렀다.⁴⁵

따라서 홍수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구제는 식민지 권력으로서 통치의 안정

44 이수치는 강수량의 근대적 계측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한강 최대 홍수로 기록되고 있다.

45 朝鮮總督府, 『大正十四年 朝鮮의洪水』(192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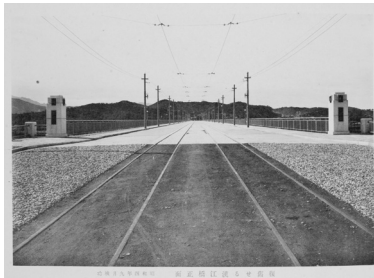
을 기하기 위해 사활이 달린 일이었다.⁴⁶ 『회고이십년』은 을축대홍수의 피해 상황과 복구 성과를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수록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시구개정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대홍수 피해 복구가 경성토목출장소의 큰 ‘업적’이었음을 기록해두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사진은 한강 인도교의 파괴와 복구(41-1, 41-2-1, 41-2-2), 용산의 침수 상황과 신방수제 건설(42-1-1, 42-1-2, 42-1-3, 42-2-1, 42-2-2)로 나뉘어진다. 식민지 시기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한강 철교와 인도교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의 파괴와 복구는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복구된 한강 인도교 측면 사진에는 다리뿐 아니라 그 위를 달리는 전차가 보인다. 단순 복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차노선까지 연장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41-2-2)는 식민지권력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에 충분하다.⁴⁷

8

한강 인도교의 파괴와 복구
* 1. 맨 좌측 사진은 파괴된 한강 인도교를 사찰하는 정무총감 일행
* 2. 우측 사진 2장은 복구된 한강 인도교로서 맨 우측 사진에서 새롭게 전차가 운행하는 모습 (붉은 원 표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용산의 홍수 전후를 보여주는 이미지⁴⁹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제작 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는다. 홍수 피해 지역이 용산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고이십년』의 이미지 구성은 오로지 일본인 중심지인 용산만이 피해를 입었고, 신방수제 건설로 용산이 안전 지대가 된 것이 복구의 ‘피날레’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식민지 토목행정의 자원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분배되는지 ‘의도치 않게’ 웅변해주는 것이다.⁴⁸ 이를테면 전형적인 조선인 마을인 이촌동도 대표적인 홍수 피해 지역이었으나, 신방수제 건설 과정에서 끝내 방수제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마



46 대홍수 이후 민심의 불안과 당국에 대한 불만 등은 박철하, 「1925년 서울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서울학연구』13(1999) 참고.

47 41-2-1, 41-2-2는 한강 인도교의 복단 일부인 한강 소교이다. 경성토목출장소는 대홍수로 파괴된 한강소교를 복구하면서 전차노선을 신용산 종점에서 中之島(현재 한강로2가 이촌동)까지 연장했다. 『漢江人道橋竣工式』, 『東亞日報』, 1929. 9. 19.; 최인영, 앞의 글(2014), pp.115-116.

48 반대로 이런 구성은 『회고이십년』이 처음부터 대중 공개용이 아니었음을 방증해주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9

용산의 침수와
완성된 신방수계

을 자체가 없어진(廢洞) 사실 등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다.⁴⁹

5. 식민지 권력의 눈으로 본 '경성 명소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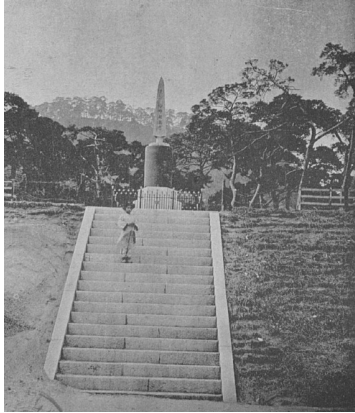
이상에서 『회고이십년』의 핵심적인 재현 전략인 비교사진술에 입각한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사진집에는 시구개정사업의 성과나 경성토목출장소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누구나 인정할 법한 경성의 명소를 나열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진집, 사진엽서 등의 구성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성신사(44), 총독부 신청사(45), 경성토목출장소(46), 경성부 신청사(47), 경성역(48), 경성우편국(49), 남산공원(50), 경성운동장(51), 장충단공원(52), 파고다공원(53), 경성제대(54), 경성제대 부속병원(55), 창경원(58, 59) 등 식민지 시기 새롭게 건립된 시설⁵⁰과 경복궁 경회루와 향원정(56, 57) 같은 대표적 역사유적, 동대문밖(52), 동소문밖(63), 청량리(64), 독립문밖(65), 세검정(66), 청계천(67) 등 교외의 일반적 경관이 그것이다.

이런 중에도 다소 이채로운 것이 있다. 공원이라고 호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공원의 전경을 보여주는 장충단공원, 파고다공원과 달리 남산공원(50)은 공원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독특하게 생긴 기념비를 채택했다.^{도10} '甲午

49 김영미, 『동원과 저항: 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푸른역사, 2009), pp.188-206.

50 장충단공원은 대한제국기 임오군란·을미지변 순사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장충단에서 연원한 것이나 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공원화'됨으로써 그 의미가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창경원도 통감부 시기 동·식물원 등이 건립되면서 궁궐의 의미를 잃고 새롭게 행락지화 되었다. 따라서 『회고이십년』의 시각에 따르면 식민지권력에 의해 건립된 새로운 시설로 볼 수 있겠다.



戰役記念碑이다.⁵¹ 갑오전역이란 1894년 청일전쟁을 의미한다. 갑오전역기념비는 곧 청일전쟁 승전 기념비인 것이다. 주지 하듯이 청일전쟁 승전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청나라를 제치고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확대하는 시발점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기념비가 남산공원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배치된 점은 의미심장하다. 게다가 이 기념비가 서있었던 위치는 남산

10

남산공원

* 하단 사진의 출전은

京城府『京城府之卷』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소장

사의 입구(현재 송의여대 정문 경비실 자리)이다. 하단 사진에서는 신사의 입구라는 위치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산공원은 곧 경성신사이기도 한 것이다.

11

경복궁과 창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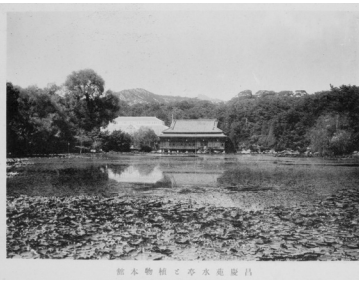
* 1. 맨 좌측 사진 상단은

경복궁 경회루, 하단은 향원정

* 2. 중앙 사진은 창경원

춘당지, 수정, 식물원

56~59 4장의 사진이 잇달아 배치된 점도 흥미롭다.⁵¹ 먼저 보이는 경복궁 경회루와 향원정(56, 57)은 경성, 나아가 조선의 대표적 역사유적을 소개한 것이지만 인적 없는 정경은 쓸쓸하다. 생명력을 소진한 과거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미지(58)는 외래 권력(통감부)이 궁궐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원화'하는 과정(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호수(春塘池), 역시 새롭게 건립한 행락 시설인 일본식 정자(水亭)와 근대적 식물원이다.⁵² 그리고 이렇게 변모한 옛 궁궐에는 한카로운 상춘객이 가득하다(59). 『회고이십년』의 제작 주체가 의



51 사진으로는 글자를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우나 『京城之光華』(藤井龜若, 1926), 21쪽에 의하면 비명이 '갑오전역기념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갑오전역기념비의 정확한 건립연도는 알 수 없으나 매천 황현의 『梅泉野錄』 1900년에 "倭人이 甲午戰役記念碑를 京城 倭將臺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국편DB 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30_0300).

52 문화재청, 『창경궁 대온실 기록화 조사 보고서』(2007), pp.33-35.

도했건 그렇지 않건 이 연속되는 이미지는 과거와 현재, 스러져가는 것과 피어나는 것의 대비를 강력하게 환기하는 또 하나의 비교사진술적 배치라고 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1930년 간행된 사진집 『회고이십년』의 사료적 위상,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1910~20년대 경성의 도시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사진집에 수록된 사진의 상당수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되었다. 그러나 사진집의 간행과 소장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 점을 전제로 이 사진집에서 볼 수 있는 식민지 시기 경성의 변화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회고이십년』은 경성시구개정의 주체인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가 이 사업의 경성부 이관을 계기로 그간의 사업 성과를 담아 간행한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소장 이력을 추적해 보면 이 사진집은 극소량만 인쇄되어 총독 등 식민지권력 수뇌부에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진집은 경성시구개정사업의 시행을 주관한 조선총독부 토목관료군이 자신의 사업 성과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기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집으로서 『회고이십년』의 사진의 배치는 시구개정 전후를 대비하여 보여주는 비교사진술에 입각해 있다. 이는 다시 경성 시가지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조망한 것, 남촌 개발 중심의 1910년대 시구개정의 성과, 식민통치 기구의 이전과 관련한 북촌 개발 중심의 1920년대 시구개정의 성과, 1925년 대홍수의 피해와 복구, 경성 명소 스케치를 통한 시대상의 부각 등 몇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회고이십년』에 수록된 사진 각각 및 그것의 배치는 식민지 권력의 엘리트 집단이 경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했는지, 그 결과 식민지 수도로서 경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권력의 시선'으로 재현한 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문헌 사료 중심으로 파악할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다시 환기할 수도 있다.

추후 경성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 나아가 식민지 시기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사료학적 검토와 컨텍스트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매체

라고 믿어지는 만큼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와 효과를 쉽게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기의 식민지 시기 연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하겠다.

주제어 keywords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 Remembering Twenty Years of Gyeo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사료의 컨텍스트 context of historical material, 비교사진술 comparative photograph technique, 경성시구개정사업 Gyeo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식민지권력 엘리트의 시선 the viewpoint of colonial elite

투고일 2017년 1월 25일 | 심사일 2017년 2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20일

※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질의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대호(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김진옥(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 이현희(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최인영(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기호 Kim, Kiho,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urban planning at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서울학연구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6, 1995.
- 김대호 Kim, Daeho,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The Change in the Northwest Mt. Namsan, the Design of Prospect and the Maintenance of Memory in the 20th Century」,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History*』 13, 2015.
- 김백영 Kim, Baekyoung, 「왕조 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 From dynasty capital to colonial city」, 『한국학보 *Hankukhakbo*』 112, 2003.
- 박철하 Park, Cheolha, 「1925년 서울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A flood control measure and victim relief activity of in Seoul in 1925」, 『서울학연구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13, 1999.
- 손정목 Son, Jeongmok, 『日帝強占期都市計劃研究 *Iljegandjeomgidosigchoekyeongu*』, 一志社 Seoul: Iljisa, 1990.
- 염복규 Yum, Bokkyu,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Seouleuigiweongyeongseongeuittansaeng*』, 이데아 Seoul: IDEA, 2016.
- 염복규 Yum, Bokkyu, 「식민지 도시계획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In Search of Lost Time in the History of Colonial Urban Planning」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History*』 17, 2017.
- 유슬기 Yu, Seulki,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 형성 과정 연구 The formation process of a newly rich town northwestern areas within city wall of Seoul」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A.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 이경민 Lee, Gyeongmin, 『경성, 사진에 박히다 *Gyeongseong, Sajinebakhida*』, 산책자 Seoul: Sanchaekja, 2008.
- 이경민 Lee, Gyeongmin, 「경성은 어떻게 재현되었나 How has Gyeongseong been reproduced」, 『황해문화 *Hwanghae Review*』 45, 2004.
- 주상훈 Chu, Sanghun, 「일제강점기 경성의 관립 학교 입지와 대학로 지역의 개발 과정 Development of the Daehakro district with the establishment of Kyungseong's governmental schools under the Japanese rule」, 『서울학연구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46, 2012.
- 최인영 Choi, Inyoung, 「서울지역 電車交通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The meaning and alteration patterns of tram traffic in Seoul area(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h.D.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Seoul, 2014.
- 廣瀬貞三 Hirose, Tejo, 「朝鮮總督府の土木官僚 Chosensotokufunodobokukanlyou」,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Nihonnochosentaiwansihaitosyokuminchikanlyou*』, 東京: 思文閣出版 Tokyo: shibunkakupublisher, 2009.
- 五島寧 Koto, Yasusi, 「日本統治下京城の都市計劃に關する歴史的研究 NihontochikaKeijonoto shikekakunikansururekisitokenkyu」, 東京工業大學 博士學位論文 Ph.D.dissertation, Tokyo: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996.

Urbanizing Gyeongseong during the 1910s-1920s: Captured in “Remembering Twenty Years of Gyeo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Yum, Bokkyu

Photography emerged as a new imaging media in modern days. Photographs, while they seemingly represent reality as closely as possible, can be manipulated due to the intentions of the photographer. Also collection of photographs can be arranged to give a specific impression on readers through careful positioning of them.

This treatise analyses “Remembering Twenty Years of Gyeo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the collection of photographs capturing urbanizing efforts of Gyeongseong during the 1910’s-1920’s. The collection was printed in small numbers with an aim of sharing the result of the project within the colonial power elite, and presented to the high ranking officials of the colonial government including the Governor General. The significance of it as a historical material has been ignored so far.

As pictures in the book were positioned according to comparative photograph technique, by which photos of same sites in different time-frame were put side by side, showing sites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This positioning was intended to highlight the fruits of urban planning of the colonial capital by the colonizers.

In this context, pictures in the collections fall into five categories: first, overview of city landscapes of Gyeongseong, second, the results of Namchon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1910’s, third, the results of Bukchon development project during the 1920’s, fourth, devastation of the great deluge in 1925 and reconstruction efforts, fifth, famous spots in the colonial capital.

By analyzing the photo collection, one can read how colonial elite attempted to transform Gyeongseong, and varied aspects of the capital reconstituted by the viewpoint of colonial elite.